

불교인재개발원 '禪의 원류를 찾아' 순례기

한송이 꽃에 다섯 잎의 향기 맡았네

3월 6일, 중국 달마굴 앞.

9년 만의 끝에 달마 스님과 혜가 스님의 조우가 이루어졌던 현장에서 한국 불자들은 1500년의 세월을 뛰어 넘어 달마 스님과 만났다. 3월 5일 한국을 출발한 불자들은 모두 60여명. 이들은 조계종중앙신도회 산하 불교인재개발원이 마련한 초조 달마 스님부터 육조 혜능 스님의 발자취를 순례하러 온 이들이다. 선의 대중화와 사회화를 위해 기획된 '육조단경 강좌'에 함께 했던 이들도 있었고, 대구 보광선원에서 동안거를 회향하고 곧바로 참여한 이들도 있었다. 부산에서 결혼 33주년을 기념하며 동참한 부부도 있었다. 네 번째 중국 선종사찰을 답사하며 '선종사찰 전문 가이드(?)'를 자칭한 고우 스님도 함께였다. 선의 사회화를 위해 <육조단경> <금강경> 강좌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고우 스님의 발걸음이 중국까지 이른 것이다.

#불안한 마음은 어디에 있나?

선의 원류를 찾아 한국을 떠나 온 지 이틀째인 이날, 한국의 불자들은 팔 한쪽을 잘라 붉은 피로 신심(信心)과 구법(求法)의 심인(心印)을 새겼던 혜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달마 스님의 기다림은 길었고 이곳을 찾은 한국 불자들의 순례길도 멀고 험했다. 그러나 1500년과 한국과 중국이라는 시공(時空)은 문제되지 않았다. 아득하고 좁은 굴에 몸을 숨긴 달마 스님을 밟아놓은 중국 땅에서 혜가 스님이 찾아내셨듯 구하고 하는 이예전 반드시 드러나고야 마는 것이 법의 현묘함이 아니던가? 주머니 속의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듯 드러나고 마는 것이 법이요, 마음의 본질임을 달마 굴 앞에서 깨닫는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달마 스님의 기다림을 온전히 느끼며.

달마굴을 나오면 한 불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 불안을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비바람이 떨어지는 이렇게 좁은 곳에서 9년이나 앉아 제자를 기다리다니 마음이 숙연해져서 불안한 마음이 오간 데 없다."

경운기를 타고 한참을 달린 뒤 다시 가파른 계단을 걸어올라 도착한 달마굴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장관이다. 오른쪽으로 눈길을 주면 혜가 스님이 머

물렀던 이조암이 가늠되고 눈길을 아래로 던지면 일조암이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다. 좁은 길이 구불구불 달마굴로 이어지고 그 길을 걸었을 혜가 스님 이눈에 그려지는 듯하다.

#만발한 유채꽃 '전법계' 처럼 아름다워

마음의 본질을 찾아 나선 일행을 반긴 것은 중국 들만에 만개한 노오란 유채꽃이었다. 스승 반야다라의 뜻을 받들어 동토(東土)에 선(禪)의 씨앗을 심었던 초조 달마 스님과 그 선맥(禪脈)을 이은 중국 선사들의 발자취를 좇아 나선 길, 그 길 위에 만발한

열매가 맺힐 것을 미리 내다보았다. 순례단은 달마 스님과 다섯 꽃잎이 피고 졌던 자리를 따라 이어지는 길 위에 서 있었다. 첫날 석가장에 도착, 일제 스님의 주석사인 인제사와 조주 선사 주석사인 백림 선사를 둘러본 불자들의 순례길은 남쪽으로 향했다. 등봉, 정주, 송산을 거쳐 신앙에 이른 순례길에서 소림사와 달마굴, 일조암, 이조암을 참배했고, 당나라 시대 스님들의 부도탑인 탑림을 지나는 대장정이 시작됐다.

#뜻밖의 환영식... '형식'을 벗은 고우스님

3일째 삼조사인 산곡사를 향했던 일행 앞에 뜻밖의 환영식이 일어났다. 삼조사 주지인 관음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환영식을 준비한 것이다. 이것을 본 고우 스님이 장삼을 벗으려 했다. 일순간 일행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문경 대승사 월산 스님, 양산 조계암 상현 스님의 만류로 결국 고우 스님이 참석하지 않은 채 환영식은 진행됐다. 이날 순례단의 마음에 거친 파도가 일었다. 웬만한 경계에는 흔들림이 없던 일행들도 이날 주지 관음 스님과의 차담 시간에 오갔던 월산 스님의 선문답에 마음자락이 걸리기도 했다.

"주지 스님이 환영식을 준비했으니 그냥 응해주면 될 것을 왜 저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제일 불자는 다음 날 고우 스님의 설명을 듣고 마음의 불편함을 내 려놓을 수 있었다. 천주산으로 향했던 4일째 일정 중 사조사 전법동에 앉아 짧은 참선시간을 갖기 전 고우 스님은 전법의 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선은 본래 우리 마음의 본질인데 이렇게 탐 홀리며 중국까지 와서도 형식이 얽매어서야 되겠나 싶어 내 진사 가사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지." 불자들의 내면 깊은 곳에 울림으로 전해진 말이었다.

월산 스님의 손뼉 소리로 시작된 참선이 고요하게 이어졌다. 혜가 스님의 불안한 마음, 승찬 스님의 회, 도신 스님의 속박된 마음이 스승과의 만남으로 일순간에 사라졌듯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불안, 죄, 구속감의 마음에서 풀려나는 시간이었다.

#혜능 스님의 숨결은 생생한데...

오조사를 거쳐 육조사에서 이르러서 순례는 절



친절한 안내사 고우 스님(가운데)과 순례단이 사조사를 뒤로하고 전법동 비로담을 향해가고 있다.

달마굴에서 육조사까지 '강행군' 속 '禪의 맛' 심취

고우 스님 '전문가급 가이드'에 동참자들 감동의 공부

봄꽃은 너른 대륙에 선의 꽃을 피웠던 선사들의 전법계를 절로 떠오르게 해주었다.

인도의 27조 반야다라는 "마음에서 모든 종자가 생기고 인연의 일로 다시 이치가 난다. 과만하여 보리가 원만해지니 꽃이 피어 세계를 일으키도다"라는 전법계로 달마 스님을 중국으로 떠나보냈다. '꽃이 피어 세계를 일으키리라'던 반야다라의 예언은 그대로 실현됐다. 이어 인도 28조이자 중국 선의 초조인 달마 스님은 다시 혜가 스님에게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해 어려서든 이를 제도하려는 것이다. 한 송이의 꽃에 다섯 꽃잎이니 열매는 자연히 이루어지리라"라는 전법계로 혜가, 승찬, 도신, 홍인, 혜능의 다섯 제자로 이어져 선의



달마굴 오르는 계단. 구법의 길이 순탄할 수 없음을 암시하듯 구불구불하고 계단도 가파르다. 위 사진은 버스에서 법문하는 고우 스님(왼쪽 좌)과 삼조사의 환영행렬(위쪽 우), 사조사 전법동에서 예배하는 순례단.

정에 달했다. 중국에서도 가장 선종이 많이 남아있는 남화선사에서는 혜능 스님의 진신을 대하며 적지 않는 총격이 휩싸이기도 했다.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것 같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 한 불자는 "생과 사의 구분이 사라지는 경계를 드러낸 진신불을 참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순례"라고 했다.

가는 곳마다 고우 스님의 주제가 있는 법문이 있어 이번 순례는 더욱 뜻 깊었다. 불안, 죄, 구속감 등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주제로 이어지던 법문이 남화선사에서는 '지혜'로 갈무리되고 있었다. "구름이 걷히고 혜가 나는 것이 지혜다.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들고 보는 이것을 벗어나서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야는 드러나게 돼 있다."

6박 7일 동안 중국 땅이 넓다는 실감을 특별히 한 순례였다. 6~7시간 이동은 보통이고 어떤 날은 12

시간 버스로 이동을 감행해야 할 만큼 빽빽한 일정이었다. 밤 12시를 넘기는 것은 예시고, 새벽 5시에 피곤한 몸을 일으켜야 하는 고단함도 마음의 본질을 찾고자 맡겠다는 구법의지를 꺾진 못했다.

"선의 본류를 돌아보며 다시 발심하는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은 불자들은 "초조부터 육조까지의 도량을 돌아보며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깨달음을 밖에서 구하지 않고 내 안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린 3월 11일 아침, 혜능 스님의 출가 사찰인 광호사를 둘러보는 순례단의 마음에는 '돌아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광반조(回光返照)이며 내면에서 시작돼야 할 순례길이다. 7일간의 순례길이 떠나옴과 돌아감이 둘이 아닌 '그 자리'로 회향되고 있었다.

중국/글·사진=최희미 객원기자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 쫓는 영험!!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한 것이다. 부처님법구경에는 중생들이 사는 동안 교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다행히 화를 미리 쫓고, 금강저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교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삼고금강저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삼재소멸 삼고금강저 벨트

삼재소멸 선물! 승리의 선물!

삼고금강저벨트는 정해년 삼재가든 처사(남성)님들을 위해 향상품에이시고 다닐수 있게 제작된 벨트로 삼재소멸특별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된 벨트입니다. 2007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에 해당되는 처사(남성)님들께는 삼재를 소멸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중에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 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니다. 삼재소멸삼고금강저 건강자동벨트는 고급 천연소가죽에 실용신안 등 록 고급벨트로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삼재가 끝나는데 말일날 삼재소멸 삼고금강저벨트는 흰 종이에 싸서 기도하시고 산속에 묻으시면 삼재는 모두 끝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불광사에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

화제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새롭히는 정해년 새지갑으로 평생부자!

음마니반메흠 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양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 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들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모통하게 풀린다는 신묘 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음마니 반메흠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음마니 반메흠 복지갑은 사용해보는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모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이 헛되지 나가지 않게하는 팔십상보병관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손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銀·나노 처리 까치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즈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인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 음마니반메흠 지갑을 사용하신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장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다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 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살을 시작하는 어려움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세수가 있으므로 위험하지 말고 일을 벌이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다행히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환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禪)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다행히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양도 모르는 험한세상 남치, 강도, 살인,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인연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손금금니하여 가볍도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